

원저

火熱病 침구치료 시 적용 가능한 한방음악치료에 관한 연구

김여진 · 이승현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한방음악치료센터

Abstract

The Study of Oriental Medicine Music Therapy Applied to the Acupuncture of Pathogenic Fire

Kim Yeo-jin and Lee Seung-hyun

Dept. of Oriental Medicine Music Therapy Center, East-west Neo Medical Center,
Kyung Hee University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oriental medicine music therapy during the acupuncture of pathogenic fire.

Methods : We investigated the acupuncture points of pathogenic fire and the methodology of oriental medicine music therapy.

Results : During the acupuncture of pathogenic fire, patients listen to proper music and after withdrawing of acupuncture, patients play the musical instrument. The patients with the case of fire due to affection by exopathogen, the method of dispelling superficial fire can be used through playing percussion instruments. The case of patients with the fire of five organ, the Five Phases music can be used properly.

Conclusions : This study describes oriental medicine music therapy has a good possibility as a treatment of pathogenic fire with acupuncture.

Key words : pathogenic fire, acupuncture, oriental medicine music therapy

- 접수 : 2009. 5. 20. · 수정 : 2009. 6. 5. · 채택 : 2009. 6. 5.
· 교신저자 : 이승현, 서울 강동구 상일동 149번지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한방음악치료센터
Tel. 02-440-7840 E-mail : sori-5@hanmail.net

I. 서론

동양의학 이론에 있어 火熱은 '病因', '病機', '證候'라는 세 가지의 함의를 가지고 있다. 火熱學說의 사상은 《黃帝內經》에서 기인하며, 外感熱病의 형성원인, 주요증상, 전변규칙, 치료법과 예후, 금기에 이르기까지 개괄적으로 논술하였다¹⁾. 火는 熱과 同類이어서 火之漸은 熱이고 熱之極은 火이다²⁾. 火는 陽盛한 氣가 化生한 것이므로 火熱이라 혼칭하여 쓰는데, 火는 內生한 火熱內擾의 병리반응상태가 된다. 火熱로 된 병에도 內外의 구분이 있어서, 外感에 속하는 경우는 대개 溫熱邪氣를 직접 감수한 까닭이고, 內生에 속하는 것은 臟腑經絡의 陰陽失調로 말미암은 것이다³⁾.

《黃帝內經》중에서 熱病에 관하여 기재한 것은 《黃帝內經·素問》⁴⁾에 <熱論>, <評熱論>, <刺熱論> 등이 있고, 《黃帝內經·靈樞》⁵⁾에 <熱病>, <寒熱病>, <寒熱> 등이 있다. <熱論>에서는 “今夫熱病者皆傷寒之類也”⁴⁾라 하여 熱病이라고 하는 것은 傷寒과 비슷한 종류라고 했다.

熱의 발생기전에 대하여 《黃帝內經·素問·陰陽應象大論》에 “陽勝則熱”⁴⁾이라 하였고, <調經論>에서는 “陰虛則內熱, 陽盛則外熱”⁴⁾이라 하고, 주요 증상을 <刺節眞邪論>에서 熱하면 “皮膚緩 腠理閉, 血氣減 汗大泄 皮焯澤”⁵⁾이라고 하였다. 즉 熱은 陽盛과 陰虛로 일어나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난다.

熱은 염증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刺鍼時의 침자극은 자율신경계를 자극하여 염증 억제 효과를 보이며, 말초와 척수에서의 Cyclooxygenase 생성 억제를 통한 소염작용이 일어난다고 보고⁶⁾되고 있다. 火熱病 치료에 침구치료와 약물치료를 위주로 사용했던 치료방법과 다른 새로운 치료방법을 탐색하고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수단을 한방음악치료에서 찾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音樂治療는 심리학이론을 바탕으로 연구되어 서양의학의 신경정신과 영역에서 치료수단으로 쓰이면서 자폐아나 발달장애인의 정신적인 질병의 치료에만 국한되어 적용되는 음악치료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韓方音樂治療는 정신이나 정서적인 질병의 치료에 쓰이는 한계를 벗어나 精, 氣, 神에 영향을 주어, 정신 및 정서적인 질병과 연결된 치료뿐만 아니라 육체의 形質의인 질병에도 치료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음악치료의 이론과 연구라는 점에 우수성이 있다⁷⁾.

刺鍼을 통해 火熱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듯이 火

熱과 有關한 病證에 清熱, 滋陰하는 한방음악치료방법을 적용하는 연구⁸⁾가 있고, 현대사회에서 火熱에 관한 질병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침구치료에 대한 논문은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劉完素의 火熱論과 《黃帝內經》을 위주로 한 火熱病의 鍼灸治療를 살펴보고, 刺鍼時 적용 할 수 있으며 鍼灸治療 後 실시할 수 있는 한방음악치료요법을 소개하고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火와 熱은 病機19條에서 9條文을 구성하고 있어, 火熱로 病이 되는 것이 광범위함을 나타낸다. 火熱은 외감 및 내상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현대사회에서의 열성 전염병이나 七情을 조절하지 못해 나타나는 內傷질환도 이로 인한 것이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火는 인체 내에서 스스로 생겨나는 것과 외부에서 침입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히 체내에서 생겨나는 火가 더 많은 경우를 차지한다. 火病은 心과 肝에서 시작되고 腎과 肺가 치료의 중심이 된다. 현대에 들어와서 정신질환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음식물이 과거에 비해 膏粱厚味이고 非自然的인데다가 개인의 七情상태가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서 수많은 관계와 경쟁, 갈등 등으로 인한 사회적 스트레스가 겹쳐져서 그 현상이 두드러진다⁹⁾.

劉完素는 中風, 起居失傷, 房室勞傷, 五志過極으로 虛損病이 일어나는 병리기전을 陰虛陽實로 인식하였다. 六氣皆從火化說에서 風은 火와 함께 모두 陽에 속하여 熱이 심하면 風을 발생시킬 수 있어서 熱은 本이 되고 風은 標가 되는데 中風이 心火暴甚으로 인해서 생긴다고 보았다. 金元四大家가 論한 火는 후세 임상에서 火證과 熱證 치료에 길을 열어주었는데, 劉完素는 제일 먼저 主火論을 주창한 인물로, 그의 논점은 六氣가 모두 火化에 따르고, 傷寒은 熱病이며, 五志가 過度하면 모두 熱病이 된다고 하는 점에 반영되었다¹⁾.

陽熱이 偏盛하면 身熱喜冷하고 火熱이 傷陰하면 津액이 耗損되어 소변 短赤하고, 津傷하면 引水自救하므로 渴喜飲冷한다. 火性은 炎上하므로 面紅目赤하고, 熱이 心神을 요동하면 煩燥不寧하며, 腸熱液虧하면 대변이 건조하게 된다. 熱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신체에 나타나는데, 음양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熱證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陰에도 영향을 주어 眞

액이 손상된 증상들이 함께 나타난다¹⁰⁾.

內傷方面에 있어서 劉完素는 五志過傷皆熱의 이론을 내세워 內傷火熱病證을 情志의 측면에서 탐구하였고, 驚, 躁, 擾, 狂越, 妄譫, 鬱 등도 모두 火熱症으로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사람의 情志失常은 모두 心火와 有關하다고 생각하였다. 恐은 腎에 배속되어 心火亢炎이 腎水쇠약에서 근원한 경우라면 恐이 발현될 수 있고, 思는 脾에 배속되니 思慮가 과다하면 氣結하고 이로써 陽氣 또한 結하게 되면 결국 腸胃가 佛熱鬱結하므로 思도 火와의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²⁾. 五志의 내부에 근거하여 六欲과 七情이 激動하면 그 火가 따라서 발동하는 것이다. 大怒하면 火가 肝에서 일어나고, 醉飽하면 火가 胃에서 일어나고, 房勞하면 火가 腎에서 일어나고, 悲哀하면 火가 肺에서 일어난다¹¹⁾. 劉는 思, 悲, 恐이 化火하는 병리적 기전을 臟腑調攝이 실조하거나 오랜 병이 낫지 않고 원래 虛損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지나친 情志變化는 本臟을 손상시켜 氣機가 條達되지 못하여 鬱結積滯되고 시일이 오래 지나면 火化한다고 보았다. 火熱은 內臟기관을 손상시킬 수 있고 臟腑가 重虛해지기 때문에 思, 悲, 恐으로 생성된 火는 陰虛陽亢의 虛火에 속하는 것이 많다. 따라서 喜, 怒는 實證으로 많이 나타나고, 思, 悲, 恐은 虛證으로 많이 나타난다¹⁾.

火熱病을 크게 外感熱과 五臟熱로 구분하여 증상과 治療穴을 살펴보고, 한방음악치료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적용을 살펴보겠다.

1. 外感熱

外感熱病은 合谷, 大椎, 曲池, 十二井穴을 取하여 瀉血과 瀉熱을 한다. 外感邪氣는 먼저 頭痛, 頭重, 項強 등으로 나타나며 熱病의 증상이 머리에서부터 나타나면 足太陽膀胱經, 足少陽膽經, 督脈의 목과 뒷덜미의 經穴을 위주로 天柱, 風池, 大椎, 風府 등에 瀉法으로 汗을 내어 熱邪가 汗을 통해 나가면 병이 낫는다. 또 外感表熱일때는 合谷, 少商, 商陽, 大椎, 曲池, 太陽 등에 瀉法으로 刺鍼하거나 點刺出血하여 表熱을 淸解한다¹²⁾.

2. 五臟熱

1) 肝熱

증상은 팔다리가 빠근하고, 대변을 보기 어렵고, 쥐가 나며, 성을 잘 내고, 잘 놀라며, 힘이 줄어들고,

힘이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다¹³⁾. 肝熱病은 소변이 먼저 노랗게 되고, 배가 아프고, 드러눕는 경우가 많아지고, 몸에서 熱이 나니, 熱邪가 肝臟의 正氣와 다투면 狂言을 하고, 옆구리가 그득하듯 아프고, 손발을 흔들고, 편안하게 눕지 못한다¹⁴⁾.

때때로 몸이 덥고, 번거롭고, 초조하고, 쉽게 화를 내고, 머리가 팽창되고, 耳鳴이 생기며, 꿈이 많고 쉽게 깨고, 胸脇이 膨滿하고, 구역질나는 것은 肝鬱로 인한 發熱로 太衝, 行間, 肝俞, 曲泉, 膻中, 陽陵泉, 懸鍾 등을 平補平瀉하여 疏肝理氣하고 淸熱解鬱한다¹²⁾. 肝熱에는 肝經, 膽經의 井穴, 榮穴, 腧穴 즉 大敦, 行間, 足竅陰, 俠谿, 陽陵泉을 취하고¹²⁾, 五椎下間는 肝熱을 主한다⁴⁾.

2) 心熱

증상은 속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며, 손바닥이 달아오르면서 헛구역질을 한다¹³⁾. 心熱病은 먼저 여러 날 동안 기분이 좋지 않다가 마침내 열이 나니, 熱邪가 心臟의 正氣와 다투면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구역질을 잘 하고, 머리가 아프고, 얼굴이 붉어지고, 땀이 나지 않는다¹⁴⁾. 또 《東醫寶鑑》에서 “七情氣鬱, 則舌腫不能語. 心熱則舌破生瘡...”, “心熱則口苦, 或生瘡”, “口瘡赤者, 心熱”¹³⁾이라 하여 熱로 인해 口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心熱에는 心經과 小腸經의 腧穴 위주로 少衝, 少府, 少澤, 前谷, 腕骨 등을 취한다¹⁴⁾. 三椎下間는 胸中熱을 主하고 四椎下間는 膈中熱을 主한다⁴⁾.

3) 脾熱

증상은 나른하여 눕기를 좋아하며, 팔다리를 거두지 못하고 맥없이 동작한다¹³⁾. 脾熱病은 먼저 머리가 무겁고, 뺨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낮빛이 푸르고, 구역질을 하려하고, 몸에서 열이 나니, 熱邪가 脾臟의 正氣와 다투면 허리가 아파서 구부리고 퍼지를 못하며, 배가 그득하면서 설사를 하고, 양쪽 턱이 아프다¹⁴⁾.

脾熱에는 脾經과 胃經의 腧穴 위주로 隱白, 大都, 厲兌, 內庭, 公孫, 足三里, 陰陵泉 등에 자침한다. 六椎下間는 脾熱을 主한다⁴⁾. 熱病五十九俞에서 氣街, 三里, 上巨虛, 下巨虛는 足陽明經에 속하며 三里는 胃, 上巨虛는 大腸, 下巨虛는 小腸, 氣街는 腹中の 熱로 인한 水液代謝障礙의 증상 등을 主治하는 효능이 있어 이 8穴은 胃 속의 熱을 瀉한다¹⁵⁾.

4) 肺熱

증상은 반드시 숨이 차고 기침하며, 오싹오싹하고 추웠다 더웠다 열이 났다 한다¹²⁾. 肺熱病은 먼저 漸然하게 터럭이 곤두서고, 바람과 추위를 싫어하고, 헛바닥이 노랗고, 몸에서 열이 나니, 熱邪가 폐장의 正氣와 다투면 숨을 헐떡이고 기침을 하고, 통증이 가슴과 등으로 달려가고, 한숨을 쉬지 못하고,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고, 땀이 나면서 추워진다¹⁴⁾.

肺熱에는 肺經과 大腸經의 井穴, 榮穴을 위주로 少商, 魚際, 商陽, 二間, 合谷, 尺澤, 曲池 등에 자침하거나 點刺出血하면 肺熱을 清瀉하여 병이 치유된다¹²⁾.

5) 腎熱

증상은 뼈가 쭈시는 것이 벌레가 뼈를 갉아 먹은 것 같고, 열에 견디지 못하고 또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다¹³⁾. 腎熱病은 먼저 허리가 아프고 정강이가 시큰거리고, 갈증으로 괴로워하여 물을 자주 마시고, 몸에서 熱이 나니, 熱邪가 腎臟의 正氣와 다투면 목덜미가 아프면서 뻣뻣하며, 정강이가 차갑고 또 시큰거리고, 발바닥이 뜨겁고, 말을 하려고 하지 않으며, 氣가 逆하면 員員하고 澹澹하게 목덜미가 아프다¹⁴⁾.

腎熱에는 腎經, 膀胱經의 井穴, 榮穴을 위주로 湧泉, 然谷, 至陰, 足通谷, 委中 등을 선택하여 解熱하며 熱이 내리면 병이 경감된다¹²⁾. 七椎下間은 腎熱을 主한다⁴⁾

<刺熱論>에서 “熱病先胸脇痛, 手足躁, 刺足少陽, 補足太陰. 病甚者爲五十九刺”, “熱病先身重骨痛, 耳聾, 好暝, 刺足少陰, 病甚者爲五十九刺”⁴⁾라 하여 熱病이 심할 때 五十九刺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熱病의 鍼刺法에 관하여 《黃帝內經·靈樞·熱病》과 《黃帝內經·素問·水熱穴論》에 각기 다른 五十九刺의 經穴 위치와 刺鍼의 효능이 기재되어 있다.

<水熱穴論>에서 “頭上五行, 行五者, 以越諸陽之熱逆也, 大杼, 膺俞, 缺盆, 背俞, 此八者, 以瀉胸中之熱也. 氣街, 三里, 上巨虛, 下巨虛, 此八者, 以瀉胃中之熱也. 雲門, 髃骨, 委中, 髓空, 此八者, 以瀉四肢之熱也. 五臟俞傍五, 此十者, 以瀉五臟之熱也”⁴⁾라 하여 部位別 經穴이 각각 胸, 胃, 四肢, 五臟의 熱을 瀉함을 나타내었다.

<熱病>에서 59刺는 兩手 內外側에 각 3穴(少澤, 關衝, 商陽, 少商, 中衝 및 少衝)이 있어 좌우 합하면 12穴이고, 五指間에 각 1穴(後溪, 中渚, 三間 및 少府)이 있어 모두 8穴, 발가락(束骨, 足臨泣, 陷谷, 太白)도 이와 같다. 頭部 前髮際 1寸 부위에 각 3穴(五處, 承

光, 通天), 髮際로 3寸쯤 들어가면 양쪽(頭臨泣, 目窗, 正營, 承靈, 腦空), 귀 앞뒤쪽에 각 1穴(聽會, 完骨), 입 아래쪽에 1穴(承漿), 項中(啞門), 巔頂部(百會), 顛會, 前髮際 後髮際(神庭, 風府), 廉泉, 風池 2穴, 天柱 2穴이다^{12,15)}. 熱病五十九俞에서 頭頂의 다섯 經에 배치된 25혈은 三陽經의 表部가 울체되어 頭部에 發熱이 나타나는 증상과 手足三陽經의 熱이 頭巔으로 厥逆하는 증상이 있을 경우 刺鍼하여 邪熱을 흩어지게 하는 효능이 있다. 五臟俞傍五는 背部 足太陽經의 第二行에 배열된 魄戶, 神堂, 魂門, 意舍 및 志室을 가리키는데, 五臟熱을 瀉한다. 熱病은 陽에 해당하고 手足三陽經脈이 모두 頭部를 行하므로 頭部에 있는 穴을 많이 사용하였고 督脈 또한 陽脈之海로 任脈보다 많이 사용되었으며 <熱病>의 五十九刺 중 四肢에 사용된 經穴은 井穴이 12개이고 腧穴이 14개이며, 榮穴이 1개 사용되었다^{12,15)}.

熱이 비교적 심하고 머리가 아프고, 땀이 많으며, 목이 말라 찬물을 마시고, 호흡이 거칠고, 심지어는 혼미하고 헛소리를 하는 것은 裏熱로 十宣穴, 十二井穴, 水溝, 大椎, 魚際, 太衝, 合谷 등을 取하여 點刺出血하거나 강한 瀉法을 써서 裏熱을 泄한다¹²⁾. 이러한 內傷發熱은 臟腑氣血이 손상을 받아 陰陽이 조화를 잃고 榮衛와 不和하여 발생된 것이다.

그 외에도 火熱病에 관하여 임상에서 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熱邪가 五臟을 손상하여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 鍼의 종류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邪氣가 心肺經脈에 머물면 鑱鍼으로 瀉熱하고, 熱邪가 肝腎 또는 心을 侵犯할 때는 鋒鍼으로, 熱邪가 脾를 侵犯할 때는 員利鍼으로 瀉熱한다^{6,12)}. 현대 임상에서는 九鍼의 다양한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것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五臟 經脈의 熱로 인한 질병에서 刺鍼의 깊이와 穴位의 선택도 邪氣가 침범한 부위에 따라 皮, 血脈, 肌肉, 筋, 骨 등에서 取할 수 있다. 內傷熱病의 치료에는 足三里, 三陰交, 背部俞穴을 刺鍼하고, 熱이 頭面에 있으면 風池, 太陽, 印堂을 刺鍼하고, 熱이 胸脇에 있으면 身柱, 臈中, 外關을 刺鍼하고, 熱이 腹部에 있으면 足三里, 陰陵泉, 中脘을 刺鍼하고, 熱이 四肢에 있으면 魚際, 太衝, 內庭, 曲池, 足三里 등을 取한다¹²⁾. 간과하기 쉬운 刺鍼의 深淺과 부위에 따른 經穴의 위치를 소개하였다.

熱病에 瀉血療法을 사용할 수 있는데, 瀉血의 효과는 瀉熱, 通經絡, 調和氣血, 止痛, 消腫, 強心 등이며,

적응증은 癰瘍, 病邪가 留滯, 鬱結된 것과 卒心痛, 暴脹, 脹滿有積, 疼痛 등이며, 熱을 밖으로 내보내고, 血의 運行을 소통시켜 질병의 상태가 개선되게 한다¹⁶⁾. 劉完素는 瀉火療法을 창시하여 사용함으로써 장부의 鬱結된 熱을 풀었다. “大煩熱, 晝夜不息, 刺十指間出血, 謂之八關大刺”, “熱無度不可止, 刺陷骨穴出血”¹¹⁾이라 하였는데 八關穴에 刺鍼하여 放血하는 방법이 淸火瀉熱의 작용이 있고, 이같은 放血療法은 후세에 영향을 끼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退熱시키는 치료수단으로 임상에서 널리 응용된다.

劉完素는 灸法이 引熱外出, 引熱下行하는 작용이 있다고 하여 熱證치료에 사용하였다. 瘡瘍 등 實熱證에 灸法을 시행함으로써 火熱의 邪氣를 밖으로 배출하고, 上部에는 陽熱이 있고 下部에는 陰寒이 있는 경우 足上의 穴位에 뜸을 뜨면 陽熱이 아래로 내려오고 陰寒이 제거되어 陰陽이 소통하게 된다¹⁾. 또 《동의보감》에서도 “身熱如火, 足冷如水, 灸陽輔”¹³⁾라고 하여 身熱 足冷에 灸로 치료함을 밝혔다.

留鍼시간의 長短은 병증의 寒熱, 脈象의 緩急, 체질의 강약과 반응속도의 빠름과 느림에 따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黃帝內經·靈樞·脈度》에서 “熱則疾之, 寒則留之”⁷⁾라고 하여 刺鍼時 留鍼시간에 대해 밝혀 놓았다. 즉 熱로 인한 病證에는 寒證에 비해 상대적으로 留鍼시간을 짧게 한다.

透天涼法은 肌熱과 骨蒸을 치료하는 것으로 先深後淺, 六陰數를 이용하여 三出三入하고, 緊提慢按하여 서서히 鍼을 들어올려 熱氣를 물리치는 것을 말한다. 熱痺, 急性癰腫과 같은 實熱性 질환에 多用한다¹⁷⁾. 이는 刺鍼時 徐疾, 呼吸, 捻轉, 提插을 통하여 寒熱을 조절하는 鍼刺法으로 熱證에 사용할 수 있다.

사암침법에서 火鬱의 치료는 陰谷·曲泉을 補하고 大敦·少衝 丹田을 瀉하며, 熱鬱에는 陽谷·解谿를 補하고, 臨泣·陷谷을 瀉하는데, 火鬱의 유발기전은 相火의 鬱滯로 肝의 條達기능이 상실되어 肝의 上升之氣가 저해되므로 心包까지 鬱滯되고 鬱滯된 相火와 心의 火가 어울려져 熱病이 되는 것이며, 熱鬱은 目蒙, 口乾舌燥, 小便淋濁 등의 증상이 나타는 것으로, 胃氣가 약해지면서 陽氣가 뺏어 나가지 못하고 胃에 몰려 熱鬱의 증상이 나타난다⁹⁾고 하였다. 그 외에도 熱病 치료시 주의할 점으로 《黃帝內經·素問·刺熱論》에서 “諸治熱病 以飲之寒水乃刺之 必寒衣之 居止寒處 身寒而止也”⁴⁾라 하여 熱病을 치료할 때에는 차가운 물을 마시게 하고 나서 刺鍼하고, 반드시 옷을 차갑게 입히고 차가운 곳에 거처하게 하며, 몸이 차가

워지면 刺鍼하기를 그친다고 하였다. 또 丹溪는 火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修心養性하며 음식을 담백하게 먹을 것을 강조하였다⁹⁾.

3. 한방음악치료의 이론적 배경

《黃帝內經·靈樞·脈度》⁵⁾에서 “五臟은 항상 안에서 위쪽 七竅로 문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므로 肺氣는 코로 소통하니 肺가 화평하면 香臭를 알 수 있고, 心氣는 혀로 소통하니 心이 화평하면 혀는 五味를 알 수 있으며, 肝氣는 눈으로 소통하니 肝이 화평하면 눈은 五色을 분별할 수 있으며, 脾氣는 입으로 소통하니, 脾가 화평하면 입은 五穀을 알 수 있으며, 腎氣는 귀로 소통하니 腎이 화평하면 귀는 五音을 알 수 있다”라고 하여 五臟이 외부의 氣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五臟은 竅를 통해서 외부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意志나 상태를 밖으로 표현한다. 즉 天地의 五行之氣는 七竅를 통하여 인체의 五臟과 서로 직접적으로 교통하며, 五臟은 또한 七竅를 통하여 천지의 변화를 自覺하고 자기의 意志를 내비칠 수 있다. 肝은 눈을 통하여, 心은 귀를 통하여, 脾는 입을 통하여 肺는 코를 통하여, 腎은 二陰을 통하여 外界와 氣를 교류함으로써 情報를 취득하고 반응을 나타낸다. 이는 천지간에 분포한 다양한 기질의 事物들이 인체와 교류할 때, 五行의 분화에 따라 다섯 가지로 분절되어 각기 자기와 반응할 수 있는 수용기관을 통해 출입함을 나타낸다. 이렇게 인간의 감각 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반응들은, 이 七竅를 통해서 받아들여 인간의 五臟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간은 반대로 이러한 자극에 대한 반응을 五臟의 주도에 있는 각 부분을 통하여 외부로 표출하게 되는 것이다¹⁷⁾.

인간에게 미치는 外界의 영향들은 모두 氣 운동의 特화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예로 소리는 귀가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特화된 氣의 운동이며, 빛은 눈이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氣가 特화된 것이며, 음식은 입이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氣가 特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竅와 상응하는 五臟은 각기 特화된 氣를 수용함으로써 독특한 자기만의 氣場을 형성할 수 있다. 즉 五臟은 각기 고유의 발현 기관을 가질 뿐만 아니라 수용기관을 가져 외부의 자극을 기질에 따라 분리하여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五臟은 外竅를 열어 天地의 기운과 교통

할 뿐만 아니라, 五臟의 神은 外竅의 정보 수집을 근거로 해서,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인체의 생명활동을 주재한다고 할 수 있다. 五臟은 이러한 다양한 氣質들을 자기의 外竅를 통해 수용하여, 자기의 生命樞機를 작동하는데 보조자로 활용하고, 또 여기에서 얻어진 여러 가지 氣質을 배출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질과 五臟의 반응을 이해하면, 이를 통해 질병 등 이상 징후가 어느 臟으로부터 유래하였는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五臟의 特性에 맞는 外界의 氣를 자극 요인으로 활용하여 五臟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생명체의 여러 가지 질환을 개선할 수도 있다.

五臟의 特性에 맞고 特화된 外界 氣의 한 형태가 音樂이 발하는 氣라 생각하고, 五臟의 五行屬性에 따라 分化된 音樂의 氣는 하나의 자극이 되어 五臟의 생명활동에 영향을 주므로 여러 가지 疾病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治療法이 된다.

4. 火熱病에 대한 한방음악치료의 적용

한방음악치료는 한의학의 이론과 치료방법을 바탕으로 연구된 새로운 치료법으로, 인체의 조직구조, 생리기능, 병리변화, 진단, 치법에 맞는 氣를 發하는 음악을 사용하여, 陰陽失調를 조절하여 病의 빠른 好轉과 治療를 목적으로 鍼灸치료나 약물치료와 병행하여 실행하는데,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포함하는 心身均衡의 정신에 입각한 치료수단이다⁷⁾.

火熱病 침구치료 시 적용할 수 있는 한방음악치료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留鍼시간을 20분으로 했을 때, 刺鍼 5분 경과 後 해당되는 음악을 10분간 감상하게 하고, 그 후 5분간은 음악을 들려주지 않으면서 留鍼한다. 拔鍼 後에는 환자의 상태와 증상에 따라 악기를 선택하여 직접 연주하게 한다.

外感熱은 發散시켜야 하는데, 초기에는 마라카스를 민간풍류 굿거리애에 맞춰 흔들기를 실시한다. 마라카스란 양손에 쥐고 흔들어서 소리를 내는 體鳴악기이고, 굿거리는 곡명으로 쓰이기도 하고 12박을 한 句로 하는 장단인데, 보통보다 빠른 $J=60-70$ 속도이며 흥겨운 느낌을 자아낸다. 外感熱이 심한 경우에는 소고치기를 가야금 중중모리에 맞춰 2회 실시한다. 중중모리는 조금 빠른 12박으로, 1박을 8분음표로 나타내면 8분의 12박자가 된다. 빠르기는 $J=80-96$ 이다. 이 중중모리는 觸動之氣를 發하는 음악으로 外感熱을 발산시킨다.

五臟熱 中 肝熱일 경우 肝氣를 소통시키기 위해서 먼저 木氣音樂 중에서도 가볍게 觸動하는 음악을 사용하여 肝氣를 부드럽게 풀어주어야 한다. 구체적인 악곡으로는 황병기 가야금곡 '전설' 中 'Ⅲ. 놀이', 'Ⅳ. 춤'을 치료에 사용한다. 그 후 土氣音樂에 맞춰 우드블럭을 사용하여 약 10분 정도 오행리듬을 따라 치게 한다. 우드블럭이란 단단한 나무의 속을 파내어 만든 악기로 한 손에 막대를 쥐고 치는 타악기이며, 土氣 음악은 부드럽고 평안한, 포용력이 있는 象을 띠는 음악이다⁷⁾. 마무리 리듬으로는 1박자의 길이로 숨을 들이쉬고 4박자 길이로 숨을 내쉬어서 1:4의 비율로 호흡을 진행하고 이때 호흡에 맞추어 우드블럭을 침으로써 熱을 배출시킨다.

心熱일 경우 淸熱瀉火해야 하기 때문에, 펼쳐 있는 기운을 내부로 거두어들이고 收斂之氣를 發하는 金氣音樂을 사용한다. 구체적인 악곡으로는 대금으로 연주하는 청성곡을 치료에 사용한다. 堯天舜日之曲이라고도 불리는 청성곡은 역취법과 저취법의 지속음이 조화를 이루어 청아하고 맑은 소리를 발하는 대금의 음색과 긴 지속음의 사이사이에 다양한 꾸밈음 주법들, 특히 상청에서의 장쾌한 청 울림으로 그 가락이 힘차다. 대금은 淸熱音樂療法の 악곡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악기이다⁷⁾. 연주악기로는 핸드벨을 사용하는데, 처음에는 음계에 대한 스케일 연습을 시키고 이후에 연주를 시작한다. 치료사와 같이 쉬운 악곡부터 8마디 정도의 악절을 반복시킨 이후 화음 연주를 병행하는데 보통 1도, 4도, 5도를 시행한다. 다음으로는 굿거리장단의 구음을 손장단에 맞춰 5회 실시한 후 病症에 따라 투여하는 악기를 구분하여 각각 소고, 장구, 팽과리, 트라이앵글을 치면서 구음을 3회 실시한다. 환자에게 소리를 내게 하는 구음요법을 실시함으로써 기운을 발산시키고, 퍼지게 하게 熱을 제거할 수 있다.

脾熱의 치료 時 音의 자극을 투여하는데 있어, 樂曲은 4분 음표를 主 리듬으로 사용하고, 장3화음의 기본 체제 위에 상행선율과 하행선율이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平溫하고 안정된 土氣를 發하는 Camille Saint-Saens의 Cello로 연주하는 Le Cygne를 들려준다⁷⁾. 악기연주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장구나 북으로 樂曲 千年萬歲에 맞춰 4박자에 1회씩 土氣리듬을 치게 한다. 脾臟의 熱을 佈散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그 후 가야금 산조 중중모리에 맞춰 마라카스로 연주하게 한다.

肺熱 초기에는 황병기 가야금곡 '숲' 중에서 'Ⅱ. 빠

꾸기'를 留鍼시간 동안 들려주는데, 당김음이나 붓점음표를 많이 사용하여 觸動之氣를 품고 있어 산뜻하고 경쾌한 느낌을 주며 昇發의 기운을 發한다. 가야금이 발현하는 맑은 음색과 빠꾸기의 울음소리를 묘사한 부분이 봄의 기운처럼 튀어 오르는 느낌을 준다. 肺熱이 더 심할 때는 Mozart의 Eine kleine Nachtmusik K.525 4악장 Rondo에 맞춰 마라카스를 연주하게 하는데, 이 악장은 Allegro(빠르게)의 속도이다. 이 4악장은 火氣음악에 속하는데, 陽中之陽의 속성을 갖고 성장하고 번성하는 분열력이 있는 火氣의 象을 띠는 음악으로, 주된 리듬의 스타일이 8분음표와 16분음표, 32분음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힘차게 뻗어 가는 느낌을 주는 음악적 표현과 빠른 스타카토, 크레센도(점점 크게)와 더불어 사용하는 선율을 사용하는 음악이 火氣음악이다⁷⁾. 火氣음악을 사용함으로써 울체된 熱을 풀어 준다.

腎熱이 있을 때 淸熱音樂療法은 精을 갈무리하여 藏精하는 것을 돕는 악곡을 사용해야하므로 氣를 모아 潛藏하는 것을 돕는 水氣音樂을 사용한다⁷⁾. 구체적인 악곡으로는 거문고 산조 中 가장 느린 진양조를 치료에 사용한다. 술대로 쳐서 소리를 발하는 거문고는 왼손으로 께를 짚어야만 음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거문고는 깊고 무거운 남성적인 악기로, 특히 느리게 움직이는 진양조에서는 음악적 깊이와 무게가 하현중심의 선율과 어우러져 潛藏之氣를 發하여 陰虛熱로 인한 腎熱을 滋陰한다.

Ⅲ. 고 찰

火熱을 치료하는 방법은 淸熱瀉火하는 것이다. 臟腑에 熱이 있으면 淸熱시켜야 한다. 무릇 六淫의 邪는 中寒과 寒濕을 제외하면 모두 병적인 熱이 아닌 것이 없으니, 熱氣가 훈증하면 口, 舌, 脣, 齒에 나타나거나 口渴을 보이고 小便, 大便에도 나타난다. 《黃帝內經》 <熱病>과 <水熱穴論>에서의 熱病을 치료하는 59俞穴은 명칭과 부위가 일치하지 않으나 18개俞穴은 같다. <水熱穴論>에서는 病邪가 존재하는 局部에서 論했고 標를 치료하는 穴이며, <熱病>에서는 질병상태를 論했고 本을 치료하는 穴이다.

火熱의 침구치료원칙은 첫째, 일반적으로 淺刺하며 留鍼하지 않고 刺絡을 선용한다. 둘째, 督脈의 穴位를 선택하여 刺絡을 하거나 瀉法을 사용하는데, 陽氣의

太過不足을 조절하고 發熱을 祛邪함으로써 解熱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셋째, 井穴과 身熱을 主하는 榮穴을 활용한다. 耳鍼의 경우 耳尖과 耳背를 선택하여 刺絡한다. 사암침법에서는 五臟熱의 경우 각각 寒熱補瀉를 한다¹⁸⁾.

火熱病의 침구치료를 크게 外感熱病과 五臟熱로 나누어서 사용되는 經穴을 살펴보고, 그 외 瀉血療法, 寒熱補瀉法인 透天涼法, 九鍼의 활용, 留鍼시간과 刺鍼의 深淺을 응용하여 치료할 수 있다.

한방음악치료는 인체의 精神氣血을 조절하여 形質의으로 발병한 육체적 疾病治療에 사용되는데, 생명체의 生長收藏, 生老病死 變化와 이의 토대가 되는 陰陽五行의 관점을 통하여 환자의 상태를 바라보고 진단하며, 치료에 있어서도 陰陽五行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치료 계획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방법이 서양의 음악치료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七情의 변화나 氣血의 순환은 모두 陰陽五行 운동을 하고 있다. 肝心脾肺腎의 五臟의 활동이 바로 陰陽五行의 법칙을 따르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五神과 七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治療方法은 환자의 病證과 상태에 따라 韓方音樂治療 17요법 中 개개인의 症狀에 따라 治法을 선택하여 시행하는데, 환자가 음악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療法에 따라 분류된 리듬과 악기를 사용하여 치료사를 따라 직접 연주한다. 즉 각각의 환자에 대한 변증을 통해 환자의 기운의 흐름을 잘 살피고, 순조롭게 氣가 소통되도록 治療를 시행함으로써 인체의 精神氣血을 조절해 나가 정신적 질병뿐만 아니라 육체적 질병의 치료수단으로 쓰이는 것이 한방음악치료이다.

火熱病 치료시 침구치료와 함께 병행할 수 있는 한방음악치료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外感熱病일 때는 瀉法으로 發汗시키고 點刺出血하여 表熱을 淸解하고, 사용되는 음악은 觸動之氣를 發하는 음악으로 發散시킨다. 五臟熱 治療時 本臟 經脈과 表裏經脈의 經穴을 주로 사용한다. 肝熱일 때는 木氣音樂 중에서도 가볍게 觸動하는 음악을 사용하여 肝氣를 부드럽게 풀어 주어야 한다. 心熱일 때 樂曲으로는 대금으로 연주하는 청성곡을 치료에 사용한다. 脾熱일 때는 장구나 북으로 樂曲 千年萬歲에 맞춰 4박자에 1회씩 土氣리듬을 치게 한다. 肺熱에는 당김음이나 붓점음표를 많이 사용하여 觸動之氣를 발하는 악곡으로 昇發의 기운을 주며, 腎熱에는 거문고 산조 中 진양조를 사용하여 五臟熱의 치료에 적용할 수 있다.

음악요법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율신

경, 심박변이도, Ink Foot Print 분석 연구¹⁹⁻²¹⁾가 있으나,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방음악치료가 현재 임상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한의학의 기본 이론에 근거한 새로운 치료 수단으로 침구치료나 약물치료와 더불어 사용될 수 있으므로 활용도를 높이고 향후 보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IV. 결 론

이상의 연구를 통해 火熱病의 침구 치료 시 병행할 수 있는 한방음악치료에 대해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火熱病은 크게 外感熱病과 肝熱, 心熱, 脾熱, 肺熱, 腎熱 등의 五臟熱로 분류할 수 있다.
2. 火熱病 刺鍼時 각 병증에 따라 분류된 音樂을 감상시키고, 拔鍼 後에는 환자의 상태와 증상에 따라 악기를 연주하게 한다.
3. 外感熱일 경우는 發散시키고, 五臟熱일 경우 淸熱, 佈散, 滋陰시키는 방법으로 한방음악치료를 시행한다.

V. 참고문헌

1. 蔣喜旭. 劉完素의 醫學思想에 關한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2. 金知權. 難經 第七十五難을 中心으로 한 金元四大家의 火熱論에 대한 文獻的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3. 전국한외과대학 심계내과학교실. 心系內科學. 서울 : 군자출판사. 2006 : 114.
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 東洋醫學研究院. 1985 : 23, 116, 119-20, 213, 218.
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 東洋醫學研究院. 1985 : 115, 130, 138-9, 297, 316.
6. 조중현, 안성훈, 손인철. 침의 염증 제어 기전에 관한 최근 견해. 경락경혈학회지 2008 ; 25(2) : 43-55.
7. 이승현. 한방음악치료학. 서울 : 군자출판사. 2008 : 26-9, 67, 70, 82-3, 86, 110-1, 115.
8. 이승현, 김여진. 淸熱音樂療法을 適用하는 韓方音樂治療에 關한 研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8 ; 22(2) : 285-92.
9. 司空照贊. 사삼침법의 화열에 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0. 전국한외과대학 한방병리학교실. 동의병리학. 서울 : 일중사. 1999. 400.
11. 대한침구학회 교재편찬위원회. 鍼灸學 下. 경기도 : 집문당. 2008 : 344, 346-7.
12. 康鎭彬. 경전침구학. 서울 : 일중사. 2000 : 426-40.
13. 허준. 對譯東醫寶鑑. 서울 : 범인문화사. 2002 : 600-3, 1125.
14. 소재진. 현토역해 침구대성 1. 경기도 : 대성의학사. 2007 : 52-9.
15. 정미경, 윤종화, 박현국, 김기욱, 장민기, 이승덕, 김갑성. 《黃帝內經》의 熱病 治療穴과 防風通聖散의 이론적 상관성에 관한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2008 ; 25(5) : 1-16.
16. 이준근. 黃帝內經 素問 中 瀉血에 關한 研究.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논문. 2007.
17. 이승현, 백상용. 생명운동과 성음의 관계에 대한 연구-한방음악치료의 이론 연구 I.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2 ; 8(1) : 32-3.
18. 대한침구학회 교재편찬위원회. 鍼灸學 中. 경기도 : 집문당. 2008 : 277-8, 282.
19. 유선숙. 음악활동이 성인의 자율신경계 반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20. 윤창준, 류현식, 송미연, 신현대. 두 가지 장단의 국악연주가 심박변이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2007 ; 17(3) : 135-45.
21. 이승현, 박경수, 신현대. 뇌경색 환자에게 실행한 한방음악치료 前後의 Ink Foot Print Analysis 1 예. 한방재활의학과학회. 2008 ; 18(3) : 147-56.